

“공동체 희망 밝히는 ‘자원봉사 도시’로”

‘취임6개월’ 조항훈 (사)광주동구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자원봉사는 지역의 희망을 밝히며 공동체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동구가 전국에서 가장 활력 있고 의미 있는 자원봉사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항훈 (65·사진) (사)광주동구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11일 올해 목표와 지향점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지난해 7월24일 제3대 이사장 취임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나선 그는 약 6개월의 시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로 병오년을 맞아 무등산 너릿재에서 진행했던 ‘떡국 나눔’을 꼽았다.

조 이사장은 “광주를 넘어 전남에 계시는 지역민을 위한 행사였던 만큼 굉장히 뜻깊었다”며 “예상했던 것보다 인파가 많이 몰렸는데, 행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봉사자들에게 감사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봉사자가 행복한 동구 조성’ 포부

세계 자원봉사의 해 맞아 가치 제고

지역사회와 동반성장 기반 마련도

취임 반년을 맞아 전하고 싶은 포부와 바람은 올해를 자원봉사자가 가장 행복한 동구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동구민이라면 누구나 봉사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열린 생태계를 구축하고 동구만의 매력을 담은 자원봉사 활동을 확대하겠다는 게 조 이사장의 구상이다.

조 이사장은 “세대와 계층을 넘어 자연스럽게 참여가 이어지는 건강한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며 “지역의 특성이 살아 있는 프로그램을 통



해 지속 가능한 봉사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자원봉사자들이 존중과 보호를 받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환경 조성도 약속했다. 조 이사장은 “권의 보호와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인정·보상 체계를 더욱 촘촘히 마련해 자원봉사의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올해 주요 사업 방향으로 지역사회 속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 수행을 제시했다.

조항훈 이사장은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인 올해 ‘동구 선포식’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의 가치와 필요성을 널리 알리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적극 활용해 민주 시민 의식을 강화하고 생태 환경 분야의 자원봉사 활동도 한층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동구가 전국에서 가장 활력 있고 의미 있는 자원봉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올해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힘차게 달릴 것”이라며 “자원봉사자의 전문성을 키우며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중심 기관으로서 위상을 굳건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인재영기자



제25기 굿뉴스코 봉사단 ‘해외 파견’ 워크숍

국내 대표적인 대학생 장기 해외봉사 프로그램 ‘굿뉴스코 해외봉사단(이하 굿뉴스코)’이 다음 달 25기 단원들의 각국 파견을 앞두고 오는 14~17일 최종 워크숍에 돌입한다.

11일 굿뉴스코에 따르면 2002년 출범한 굿뉴스코는 매년 수백명의 대학생들 100여개국에 파견해 누적 1만여명이 참여한 해외봉사단이다.

지난해 12월31일부터 1월3일까지 진행된 굿뉴스코 1차 워크숍에서 선배 단원으로 강연에

나선 4기 남아프리카공화국 단원 안여공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겸임교수는 “여러분이 해외에서 보내게 될 11개월은 단순한 봉사 시간이 아니라 한 나라에 깊이 들어가 사람들과 부딪치며 ‘나는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를 발견하는 시간”이라며 “굿뉴스코는 제가 ‘오래 붙들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한 프로그램이었다. 여러분도 이 시간을 삶의 방향을 찾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단원들을 격려했다. /박희중기자



목포해양대·현대삼호 ‘항만 인프라 구축 워크숍’

국립목포해양대학교는 “최근 영암 현대호텔에서 RISE사업단과 HD현대상호가 ‘북극항로 개척 대비 항만 인프라 구축 및 조선·해운·물류 협력 방안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워크숍에는 전남도청 해운항만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광양시청, 여수관광항만공사 북극항로 추진단 등 유관기관과 산업체, 학계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북극항로 개척과 전남도 중점과제 실현을 위한 여수관광항의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참석자들은 원유·석유화학 분야에 특화된 여수관광항을 부산·울산항과 함께 남해안의 복수 거점 항만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북극항로 운항을 위한 독자적인 쇄빙 기술 확보와 AI 기반의 항로 최적화 기술 도입의 시급성도 제기됐다.

내방 상선 건조 지원과 해양계 대학 실습선에 내방 기능을 탑재해 실증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강조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나주·화순자원화시설, 노인복지센터 물품 후원

나주·화순광역자원화시설은 “최근 금호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달하는 ‘사랑의 쌀, 노래방 기기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헌신하는 복지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어르신들의 활기찬 여가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박정현 나주·화순광역자원화시설 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



살피는 문정룡 금호노인복지센터 센터장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며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종환 기자

한성수 담양 봉산면 지사협 위원, 올해도 쌀 기탁

담양군 봉산면은 “최근 연동마을 주민 한성수(사진 오른쪽서 네 번째)씨가 직접 수확한 백미 20kg 20포(15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11일 밝혔다.

봉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4년째 활동 중인 한씨는 수확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도움과 신뢰를 환원하고자 올해로 5년째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에 전달된 백미는 봉산면 내 경로당 20개 곳에 지원됐다.

한성수씨는 “제가 흘린 땀의 결실이 누군가



의 하루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농사꾼으로서 더없는 보람”이라고 마음을 전했다. /담양=정송균 기자

인사

전남도 ◇4급 승진 ▲AI산업추진담당 임영규

◇4급 전보 ▲통합기획담당관 조대술 ▲건축개발과장 임진출

◇6급 승진 ▲여성가족정책관실 이복례 ▲여성가족정책관실 류태귀 ▲기업도시담당관실 강철홍 ▲통합기획담당관실 김성재 ▲국제협력관실 오세정 ▲균형성과담당관실 임선양 ▲법무담당관실 임재한 ▲이민정책과 손예정 ▲우주산업과 김명현 ▲연구바이오산업과 강원구 ▲미래에너지산업과 박용규 ▲관광개발과 김병열 ▲스포츠산업과 김병훈 ▲노인복지과 양일동 ▲감염병관리과 김다영 ▲농식품유통과 정중기 ▲해운항만과 조나영 ▲수산업통과공과 이정환 ▲지역계획과 박은석 ▲회계과 이원기 ▲문화예술과 한정미 ▲문화자원과 김진영 ▲문화산업과 박종원 ▲남도 의병역사박물관개관준비단 나종민 ▲기후대기과 최대일 ▲농업기술원 박신 ▲농업기술원 김현지 ▲인재개발원 박장철 ▲보건환경연구원 하태만 ▲보건환경연구원 오은하 ▲동물위생시험소 오현철 ▲혁신도시지원단

정동완 ▲자치경찰위원회 김수화 ▲한국학호 남진홍원 김현민

◇6급 전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정문호 ▲도로정책과 배준호

◇6급 전출 ▲해평군 김순중

◇6급 전보 ▲여성가족정책관실 조선아 ▲기업도시담당관실 하광운 ▲통합기획담당관실 박지수 ▲통합기획담당관실 김동욱 ▲국제협력관실 송동하 ▲예산담당관실 박대열 ▲법무담당관실 권경태 ▲스마트정보담당관실 윤준권 ▲자연재난과 남건 ▲인구정책과 김동철 ▲청년희망과 강건우 ▲이민정책과 김석훈 ▲희망인재육성과 김대식 ▲대학정책과 최형오 ▲대학정책과 전은세 ▲기반산업과 백계승 ▲연구바이오산업과 나은석 ▲AI산업추진단 김유진 ▲AI산업추진단 이은철 ▲AI산업추진단 김성철 ▲에너지정책과 신승원 ▲에너지정책과 이용우 ▲해상풍력산업과 문광재 ▲미래에너지산업과 박진희 ▲관광개발과 정찬준 ▲스포츠산업과 정홍일 ▲사회복지과 송정혜 ▲장애인복지과 서은숙 ▲장애인복지과 서연수 ▲건강증진과 손성일 ▲식품의약과 송하철 ▲농업정책과 최광일 ▲농업정책과 정삼욱 ▲친환

경농업과 박명희 ▲친환경농업과 김지연 ▲식량원예과 성진섭 ▲농식품유통과 최용준 ▲해운항만과 형남준 ▲해운항만과 김흥기 ▲섬해양정책과 김경탁 ▲도로정책과 최의진 ▲교토행정과 이병국 ▲교통행정과 기나구 ▲건축개발과 정선호 ▲건축개발과 김철홍 ▲토지관리과 방영석 ▲토지관리과 김영진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 박태완 ▲총무과 정문선 ▲자치행정과 강성규 ▲자치행정과 김우성 ▲회계과 허은희 ▲홍보지원담당관실 강승원 ▲일자리경제과 김영민 ▲투자유치과 박철영 ▲중소벤처기업과 허철 ▲산단개발과 임한구 ▲문화자원과 김형호 ▲환경정책과 박지애 ▲기후대기과 신창우 ▲수자원관리과 정종원 ▲농업기술원 양관승 ▲농업기술원 박강현 ▲인재개발원 박미경 ▲해양수산과학원 서경란 ▲자치경찰위원회 정인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황정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형광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김은진 ▲국제농업박람회 김효정 ▲국제수목비엔날레 최방주 ▲기후에너지환경부 박우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우재 ▲국민통합위원회 이병륜 ▲지방자치단체복귀금협의회 최지선 ▲과학기술정보통

신부 정인기 ▲보건복지부 선수정 ▲국토교통부 임현미 ▲국토교통부 김보형 ▲국토교통부 정승중 ▲법제처 김해지 ▲중소벤처기업부 김형근 ▲중소벤처기업부 김희민 ▲산업통상부 위원 ▲농림축산식품부 김복철 ▲농림축산식품부 김경관 ▲농림축산식품부 박미순 ▲해양수산부 이대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한미영 ▲국민권익위원회 주현철 ▲국민권익위원회 김창일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양연재 ▲한국섬진흥원 전수현 ▲한국의꺄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김준영 ▲(재)남도장터 이병석 ▲여순사건위원회 김래선 ▲여순사건위원회 김준국 ▲순천대글로벌대학사업단 최종현 ▲목포대글로벌대학추진단 김민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나명수 ▲전남사회서비스원 이준길 ▲전남바이오진흥원 손동식 ▲F1조직위원회 이갑례

광주시체육회 ◇3급 전보 ▲체육사업본부장 노치일

◇4급 전보 ▲생활체육부장 박치은 ▲전문체육부장 홍은주

◇5급 전보 ▲기획홍보팀장 유성훈

호남대 박태준 학생 ‘기사 자격증 4관왕’



호남대학교는 11일 “소방행정학과 박태준(사진) 학생이 2025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와 기계분야, 산업안전기사 등 3개 기사 자격증과 위협물 산업기사 자격증을 따내며 ‘기사 자격증 4관왕’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박태준 학생은 4개의 기사 자격증에 더불어 소방안전관리자 1급과 대기업 소방대 입사에 필수적인 대형면허도 획득했다.

박씨는 “고등학교 때 재난영화 ‘타워’를 보고 위기에서 시민을 구하는 소방대원이 되겠다는 꿈을 가졌고, 호남대 소방행정학과에 입학해서는 멋진 소방공무원을 목표로 학업에 충실했다”며 “삼성전자 소방대나 포스코 소방대 등에 취업해서 전공을 살리고 싶다”고 말했다.

호남대 소방행정학과는 2025학년도 국가기술자격 시험에서 재학생과 졸업생 등 14명이 22개의 기사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뛰어난 교육 성과를 보였다.

노선균 소방행정학과장은 “그동안 재학생 한두명이 최고 2개의 자격증을 딴 적은 있지만, 4개는 박태준 학생이 처음이어서 학과의 롤모델이 될 것 같다”며 “앞으로도 전공 기반 교육을 중심으로 현장에 강한 소방·안전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욱기자



전남도, 통계업무 진흥 ‘대통령상’

전남도는 11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통계업무 진흥유공’ 포상 수여식에서 통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통계업무 진흥유공 포상은 사업체 조사와 광업·제조업 조사 등 지난해 주요 통계조사에 기여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수여한다. 전남도는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

전남은 고령인구와 농림어업 종사자 비중이 높고 섬 지역이 많은 지역 특성상 통계조사 여건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통계전문가의 지역 맞춤형 조사계획 수립, 조사원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해 국가데이터처 통계 조사 수행을 뒷받침한 점이 호평받았다.

전남도는 2021년(개인·기관)에 이어 2025년(기관)에도 대통령상을 받아 통계 분야 최우수 기관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김재정 기자



여성용봉회, 전남대에 1천만원 기부

전남대 출신 여성 동문들이 자발적으로 결집해 18년간 이어온 연대가 모교 발전에 힘을 보탰다.

11일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최근 전남대 여성용봉회가 대학발전기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전달식에는 여성용봉회 박명숙 회장(㈜온돌라이프 대표)을 비롯해 이미경 총무(사)맥지 청소년사회교육원 원장), 이명자 재무(갤러리 S 대표) 등과 이근배 총장, 김양현 교학부총장, 조진형 대외협력처장 등 대학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했다.

여성용봉회는 전남대 총동창회 창립 5주년이었던 2007년 사회 각계에서 활약 중인 여성 동문들의 결집 필요성에에서 출발했다.

박명숙 회장은 “여성 동문들의 작은 정성이 모교 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남대학교와 동문 사회를 잇는 따뜻한 연대를 계속해 나가고 싶다”고 전했다.

이근배 총장은 “전남대학교에 대한 깊은 애정과 연대의 마음으로 소중한 기부를 실천해 주신 여성용봉회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박선욱기자